



미 증시, 유가 급등발 인플레, 경기 우려 확대로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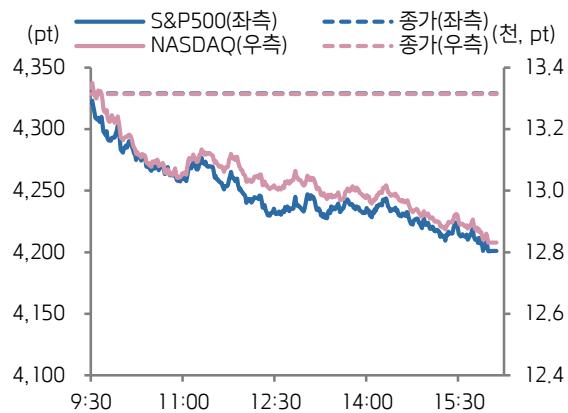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7 일 (월) 미국 증시는 서방국가들의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고려 소식에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대하면서 급락. 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들의 적극적으로 러시아 수출 금지 논의하고 있다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발언에 WTI 국제유가는 아시아 증시에서 130 달러를 상회.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감과 더불어 경기 둔화 우려감도 확대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 장 초반 약보합에서 출발한 S&P500 은 지속적으로 낙폭을 확대하면서 2%대 하락 마감. 이날 성장주, 경기소비재, 금융 섹터 중심으로 하락. 우크라이나-러시아 3 차 외교 협상은 큰 돌파구 없이 종료되었지만, 10 일 (목) 협상이 이어갈 것에 합의(다우 -2.37%, S&P500 -2.95%, 나스닥 -3.62%, 러셀 2000 -2.48%).

업종별로 에너지(+1.6%), 유틸리티(+1.3%)는 상승한 반면, 경기소비재(-4.8%), 통신(-3.7%), IT(-3.7%)는 하락.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4.9%), 다우 항공 섹터지수(-11.4%) 모두 큰 폭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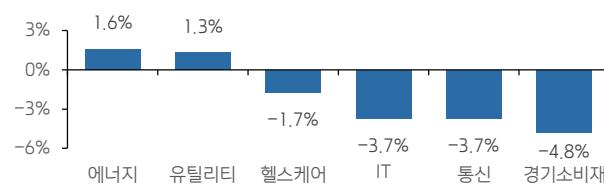
종목별로 아마존(-5.6%), 테슬라(-4.0%), 엔비디아(-6.9%) 등 대형 기술주들은 급락세를 보였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15.0%), 아메리칸 에어라인(-12.0%) 등 항공주들은 유가 급등으로 연료비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급락. 랄프로렌(-12.2%)과 PVH(-15.4%)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실적에 타격이 우려되면서 급락. 이날 웨드부시는 랄프로렌과 PVH 모두 투자의견을 하향조정. 비자(-4.8%)와 마스터카드(-5.4%)는 러시아 영업 중지 여파로 하락, 씨티그룹(-1.8%)은 제프리스의 투자의견 하향조정 여파에 하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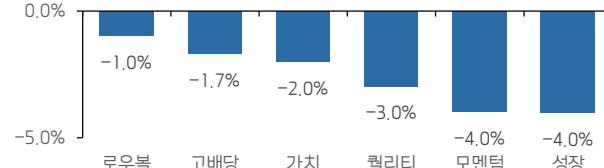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201.09	-2.95%	USD/KRW	1,226.95	+1.05%
NASDAQ	12,830.96	-3.62%	달러 지수	99.18	+0.54%
다우	32,817.38	-2.37%	EUR/USD	1.09	-0.6%
VIX	36.54	+14.26%	USD/CNH	6.33	+0%
러셀 2000	1,951.33	-2.48%	USD/JPY	115.29	+0.41%
필라. 반도체	3,098.93	-4.91%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792.96	-3.89%	국고채 3년	2.280	+8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702	+5.5bp
Eurostoxx50	3,512.22	-1.23%	미국 국채 2년	1.544	+6.8bp
MSCI 전세계 지수	679.32	-1.65%	미국 국채 10년	1.780	+5bp
MSCI DM 지수	2,896.52	-1.56%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144.91	-2.36%	WTI	120.13	+3.85%
MSCI 한국 ETF	67.11	-4.11%	금	2002.2	+1.8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4.11%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3.7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1.2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33.0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역외에서 1,230 원대를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
2. 장중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플로우에 따른 국제유가, 농산물 가격 변화
3. 에너지 관련 업종들의 추가적인 추가 상승을 둘러싼 논란 및 가격 변동성 확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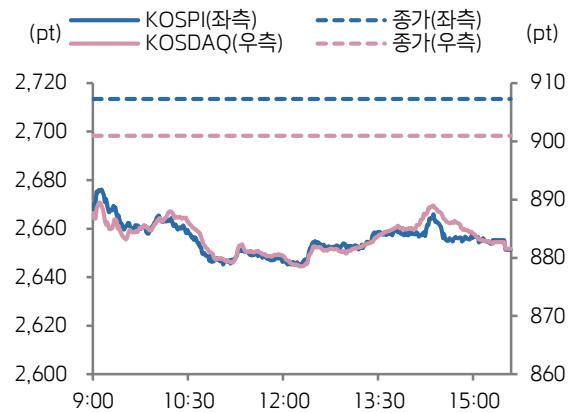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서방국가들의 러시아산 원유수입금지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점철되면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3 차 협상을 가졌으며 시장에서도 협상 개시전까지는 상당부분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기도 했으나, 민간인 대피 문제를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별다른 합의가 없이 종료된 상황.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중단, 돈바스 친러반군지역 도네츠크, 루간스크의 자국 영토로 인정한다면 전쟁을 즉시 중단하겠다는 입장. 우크라이나측은 이를 거부하면서 조기에 나토 가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EU 가입절차를 고려 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결국 양국 모두 전쟁 피해 점증 등을 감안 시 평행선을 지속적으로 달리기 어려울 전망이며, 이르면 금일 중에 개최 예정인 4 차 협상을 포함한 잇따른 후속협상을 통해 조건부 타협을 도출해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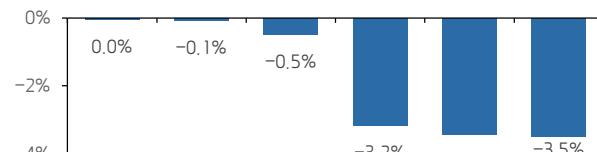
러시아산 원유수입 금지의 경우, 이를 추진할 예정인 미국과는 달리,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반대하면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석유의존도가 약 27%, 천연가스 의존도가 약 40%에 달하는 만큼,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재래 가능성성이 낮아 보임. 미국은 8 일 하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법안을 처리할 예정. 미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면서 다른 산유국들 및 자체 생산을 통한 원유 공급 차질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 더 나아가, 미국 등 주요국 경기서프라이즈 지수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까지 글로벌 경기 펀더멘털은 양호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를 감안 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가 되지 않는 이상, 과거 오일쇼크 재현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는 (우려는 있겠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확률 상으로 낮다고 판단.

금일 국내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속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로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 다만, 국내 증시는 전거래일 급락을 통해 상당부분 상기 우려를 반영해왔던 만큼, 변동성 확대 자체는 불가피 하겠으나 지수 하단의 레벨 다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장중에도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에 따라 상황이 수시로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 현시점에서는 장중 뉴스플로우 매매보다는 관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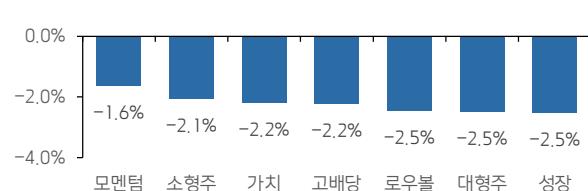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자리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	